

## 결과보고서 요약

<b>사업기관</b>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b>사업명</b>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화 전략 : 도시문화 전파를 통한 새로운 '도시성'의 발현		
<b>사업책임자</b>	<b>성명</b>	<b>소속</b>	<b>직위</b>
	김백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 서울대 사회학과	동북아시아센터장 / 교수
<b>사업기간</b>	2022.4.1~2023.1.31	<b>사업비</b>	

### 1. 사업 목적

-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의 변화상을 다층적·입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구전략의 하나로 북한 도시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함.
- 북한 도시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개별 도시의 물리적·공간적 특성과 도시사회의 외형적·양적 속성에 대한 현상적 분석 위주라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김정은 시대 새롭게 표출되고 있는 '도시성' 및 '도시문화'를 효과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는 학제적 공동연구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함.

### 2. 사업 내용

- 첫째,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지리학, 미술사 연구자 등을 포함한 다학제적 공동연구진을 구축함.
- 둘째, 여러 차례에 걸친 공동연구진 내부 세미나와 4회에 걸친 국내외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통해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간 교류네트워크를 발전시킴.
- 셋째, 2회의 외부 협력연구자 연계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4편의 연구논문을 집필·출간함.

### 3. 사업 성과

- 공동연구성과를 아래와 같이 4편의 논문으로 작성하여 “김정은 시대 북한 도시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제목하에 전문학술지에 특집논문으로 게재할 예정임.
  - (1) 김정은식 ‘사회주의 문명’ 도시공간의 생산: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 (2) 김정은 시대 도시·주택 건설정책의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
  - (3) 김정은 시대 미래과학도시 건설과 회화적 재현: 인상주의 도시풍경화의 출현
  - (4) 북한식 데사코타(desakota)? : 김정은 시대 북한 농촌의 도시화에 대한 징후적 해석
- 연내에 이를 연구단행본을 출간하고, 본 연구과정에서 확보된 연구진과 연구자 네트워크를 토대로 향후 북한 도시에 대한 2단계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 1. 사업 배경

### □ 개요

- 사업명: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화 전략 : 도시문화 전파를 통한 새로운 ‘도시성’의 발현
- 기관명: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 □ 추진 배경 및 목적

#### ○ 추진배경

- 초기 북한의 도시연구는 통치전략 차원에서 북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행
- 이에 따라 국토계획, 지역개발, 도시계획, 주요 건축물, 가로배치, 인구분포 등 개별 도시의 물리적·공간적 특성과 도시사회의 외형적·양적 속성에 대한 현상적 분석 위주로 연구
- 반면, ‘사회문화 차원의 의식·정서’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 도시사회의 독특성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
-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북한의 공적 담론 속 ‘도시문화’에 대한 강조가 대대적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의식·정서의 재현 공간으로서 ‘북한 도시성’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과 분석이 학술적, 정책적으로 요구됨.

#### ○ 목적

- 이 연구는 “북한 특유의 ‘도시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변화하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생동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계획되었음.
- 특히 김정은 시대 새롭게 표출되고 있는 ‘도시성’ 및 ‘도시문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첫째, 물리적 차원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주요 도시에 대한 개발·개혁의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의식·정서적 차원에서 김정은 시대에 확대되고 있는 ‘본보기도시’의 전개 양상에 주목, 그 사회문화적 특성과 상징성을

포착하고자 연구를 설계

- 특히, 본 연구는 ‘북한 도시화 전략’에 관한 중장기적 차원의 연구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다년간·학제간 연구를 위한 융복합적 차원의 연구단 구축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2. 사업 내용

### □ 사업 추진 내용

- 본 사업은 1단계 연구로서, 역사 및 문화사회학, 경제학, 지리학, 미술사 연구자 등 다학제적 공동연구진을 구축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북한 ‘도시 문화 전파’를 핵심 주제로 한 북한 도시화 전략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
- 공동연구자 5인이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연구주제 관련 선행 연구자들을 세미나에 초청하여 연구를 조정·발전시킴
- 전문가 초청 세미나
  - Pavel Em, "Development of Pyongyang under Kim Jong-un"
  - 황진태, “비교도시론이 북한도시연구에 주는 함의”
  - 장세훈, “북한 도시화의 경로 탐색”
  - 김태윤, “도시계획사를 통해 본 김정은시기 평양 도시경관의 특징”
- 공동연구자 5인 중간보고회
  - 21세기 북한 도시성의 도시사회학 (김백영)
  - 김정은식 ‘사회주의문명’ 도시 공간의 생성 (임수진)
  - 김정은 시대의 도시·주택 건설정책의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 (홍순직)
  - 김정은 시대, 미래과학도시 건설과 미술에서의 투영 (조민주)
  - 북한식 데사코타? 김정은 시기 북한 농촌의 도시화에 대한 고찰 (황진태)
- 공동연구자 - 외부 협력연구자 연계 연합학술대회 진행
  - 공동연구자 5인과, 연구단 외부 협력연구자를 연계한 학술대회를 진행, ‘북한 도시문화’ 관련 연구자 네트워크 조직
  - ‘북한 도시문화’ 관련 연구단 및 협력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학계 및 대중에게 공유
- 연구단 연구내용 학술지 게재 추진 (2023년 4월 출판 예정)

- 연구단의 연구자 5인 논문을 2023년 4월 '특집논문'으로 게재 예정 (아시아 리뷰)

일정별 추진 사항

일 정	추진 내용
20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참여 연구진 내부 회의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주제 조정 및 내용 논의</li> </ul> </li> <li>o 전문가 초청 세미나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도시 연구자 초청, 연구내용 공유 및 자문</li> </ul> </li> </ul>
202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참여 연구진 개인별 기초연구</li> <li>o 전문가 초청 세미나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도시 연구자 초청, 연구내용 공유 및 자문</li> </ul> </li> </ul>
20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워크숍 (중간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연구진 5인 중간 연구발표</li> <li>- 협력연구자 초청 토론 및 자문</li> <li>- 연구내용 조정</li> </ul> </li> </ul>
2022.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논문 집필</li> <li>o 통일평화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연구진 연구 발표</li> </ul> </li> </ul>
202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학술회의 개최 (결과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연구진 연구결과 대중 공개 발표</li> <li>- 협력연구자 초청 토론 진행</li> </ul> </li> <li>o 참여 연구진 논문 게재 일정 논의</li> </ul>
20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원고 수정·집필</li> <li>o 결과보고서 작성</li> <li>o 논문 학술지 투고 (1월 31일)</li> </ul>

참여 인력

- o 책임자

성명	대학	학과	직급
김백영	아시아연구소 / 사회과학대학	동북아시아센터/ 사회학과	센터장 / 교수
연구소(원)	구내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아시아연구소			kimby88@snu.ac.kr

○ 주요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급	이메일
황진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dchjt@kinu.or.kr
홍순직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sjhongfree@naver.com
임수진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rachelgirl@snu.ac.kr
조민주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mjmjmanse@hotmail.com
이진선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석사과정	jinseon@snu.ac.kr

### 3. 사업 성과

□ 전문학술지 특집논문으로 학술논문 4편 게재 예정(2023년 4월)

- 『아시아리뷰』(2023년 4월호) ‘특집주제’로서 “김정은 시대 북한 도시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한 학술논문 4편 게재 예정
  - 공동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학술논문 형식으로 하여, 2023년 특집논문으로 게재 예정 (현재 제안서 제출 및 심사중)
  -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공통 질문을 바탕으로 네 가지 연구주제를 선정, 북한의 통치체제와 주민 일상생활의 상관적 변화 양상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제안 (제안서 제출: 김백영)
    - [제1논문] 김정은식 ‘사회주의문명’ 도시공간의 생산: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임수진)
    - [제2논문] 김정은 시대 도시·주택 건설정책의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 (홍순직)

- [제3논문] 김정은 시대 미래과학도시 건설과 회화적 재현: 인상주의 도시풍경화의 출현 (조민주)
- [제4논문] 북한식 데사코타(desakota)?: 김정은 시대 북한 농촌의 도시화에 대한 징후적 해석 (황진태)

## □ 학술회의, 워크샵, 세미나 개최

### ○ 학술회의 개최(2회)

1. ‘통일·평화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2022년 11월 17일) 회의를 통한 연구단 분석내용 중간보고
  - 제목: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화 전략: 도시문화 전파를 통한 새로운 ‘도시성’의 발현”
  - 일시: 2022년 11월 17일, 16:00~18:00
  - 참석: 김백영, 홍순직, 황진태, 임수진, 조민주, 김병로, 이진선 등
  - 회의 내용: 공동연구자 5인 분석내용에 대한 중간보고 및 분석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대중 피드백
2. ‘북한도시사업 공동연구자-외부 협력연구자’ 연계 학술회의 개최
  - 제목: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화 전략”
  - 일시: 2022년 12월 20일, 14:00~17:30
  - 참석: 김백영, 홍순직, 황진태, 임수진, 조민주, 이진선(이상 공동연구자), Pavel Um, 김태윤, 박용석, 박희진, 박철현, 신수경(이상 협력연구자) 등
  - 회의 내용: 공동연구자 5인 연구 결과보고 및 협력연구자들의 연구 공유, 향후 네트워크 강화 및 연구협력방안 논의



○ 북한도시문화 연구단 하계 워크샵 개최

- 하계 워크샵을 통해 연구자들의 연구방향, 연구방법 등을 조정
- 평창 지역 답사 및 내부 세미나를 통해 남북한 지역도시의 연계 및 인식지형, 그리고 사회주의 도시 연구자 관점에서 보는 북한 도시문화의 특징 확인
- 제목: 북한도시-사회문화 연구 하계 워크샵
- 일정: 2022년 9월 2일~3일
- 장소: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게스트하우스
- 참석: 김백영 외 북한도시사업 공동연구자 및 조교 5인, 박해남, 서정경, 김태윤, 윤종석(이상 협력연구자) 등
- 논의 내용: 공동연구자 연구내용 점검, 지역 브랜딩(bradning)을 통해 구축되는 남북한 연결 및 한반도 공간의 인식지형 파악, 사회주의 도시문화 인식지형 토론



○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3회)

-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를 통해 북한도시문화 연구자 네트워크 확장 및 선행연구 경향·성과 공유
- 제1회: Pavel Um, "Development of Pyongyang under Kim Jong-un" (2022.5.18.)
- 제2회: 황진태, “비교도시론이 북한도시연구에 주는 함의” (2022.5.25.)
- 제3회: 장세훈, “북한 도시화의 경로 탐색: 변경(邊境) 지역 대도시의 공간 구조 및 주민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2022.7.6.)





○ 기타 공동연구자 소규모 연구회의 개최(4회)

-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자료 공유를 목적으로 한 기타 소규모 연구회의 4회 개최

□ **관련분야 기여도**

○ 학술적 기여

- 그동안 북한 도시에 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분석과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도시문화’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사회문화 연구자들 및 지역·지리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제시
- 학술회의,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및 연구성과를 학계 전문가들과 소통·공유하는 한편, 북한 도시문화 연구 사업팀의 연구내용을 관련 학계 및 대중에게 공개·확산
-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전문학술지에 특집논문의 형태로 공동 투고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학계에 공유하고 관련 연구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

○ 북한 도시-사회문화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 그동안 정치·사회, 경제, 지리, 예술 등 각 학문분과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온 북한 사회-도시-경제-문화 관련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단을 구성, 학제간 논의를 진행하여 연구자들 간에 다학제적 융복합 네트워크를 형성
- 공동연구자 5인 외 역사, 정치·외교, 건축, 미술 등을 포함한 외부 협력연구자들과의 상호 협업과 소통, 연계 연구활동을 추진하여 장기적 차원에서 활동 가능한 연구자 네트워크의 확대 방안을 모색함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계획단계에서의 과제구성 및 진행의 적절성,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북한도시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는 많은 부분 고려되지 못했던 바, ‘북한 도시문화’를 주제로 한 본 연구사업은 북한도시 연구자들에게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음.
- 특히 지리학, 역사학 등의 분야에 제한되어 있던 북한도시 연구를 사회학, 경제학, 미술사 등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다층적·다면적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단계 북한 도시개발 및 사회문화상의 가변성과 역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음.
- 다양한 학문분과의 연구자들이 북한사회 특유의 ‘도시성’에 주목하며 사회문화적 차원의 의식·정서를 중심으로 한 분석을 시도하여, 상호 긴밀히 연결되는 네 가지 측면에서 독자적 연구성과를 도출하였음.

○ 사업의 효율성

※ 사업의 효율성: 성과 발생여부 및 효과 발생 정도

- 초기 연구사업 계획 단계에서 연구성과로서 학술논문 2~3편을 제안하였던 바, 실제 연구사업을 진행하며 초기 계획을 상회하는 총 4편의 연구논문을 연구성과로서 최종 확보하게 되었음.
- 사업에 참여한 공동연구자들의 연구의지 및 학제간 연구활동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북한도시 연구단이 주최하는 세미나, 워크숍, 학술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북한도시’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학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관련 연구의 학내외 활성화를 촉진함.

○ 사업의 영향력

※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효과 평가

- 김정은 시대 북한 도시건설의 특징, 특히 북한 도시문화를 중심으로 한 북한 ‘도시성’의 특수성에 대한 학계 내외부 관심의 제고
- 여러 학문분과의 연구자들이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다학제적 연구활동 및 연구결과물 도출, ‘북한 도시문화’ 연구에 대한 여러 학문분과 내 영향력 제고

○ 사업의 발전가능성

※ 사업 종료 이후 사업의 효과 및 지속가능성 평가

- 향후 사업 참여연구자들의 연구내용과 사업단 외부 협력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종합 편성한 단행본 출판 논의 중(2023년 중·하반기 예정)
- 올해 사업을 북한 도시문화 연구 프로젝트의 1차년도 연구로 고려, 이를 장

기적 차원에서 심화·발전시킨 북한 도시문화 및 도시성 연구로 지속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보유한 연구자 네트워크 및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통해 다차년도 연구 사업으로 지속·발전시킬 계획

####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코로나 영향으로,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국내 일부 연구자들에게 제한했던 것을 고려, 향후 국외 연구자 초청 세미나 및 학술회의를 계획하여, 연구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당해 연구사업은 연구단의 파일럿 스터디로서 진행되었던 바, 장기적 차원에서 연구내용을 심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 향후 계획

- ※ 향후에도 본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 사업을 확장·변경·발전시킬 것에 대한 잠재적인 계획을 작성
- 김정은 시기 대외환경 및 대내환경 변화를 목도하여, 도시문화 및 도시성이 단기적 및 중장기적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하였고 또 변화할 것인지, 역사적 차원에서 심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차원에서 살필 수 있는 김정은 시기 북한도시의 특수성을 살펴보는 연구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겠음.

#### □ 건의사항

- ※ 사업의 진행,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하여 통일평화연구원 혹은 학교 본부에게 전달할 건의 사항을 기재
- 연구행정 시작일이 예정보다 연기된 점을 고려, 향후 예정된 연구사업 시작일에 맞추어 집행될 수 있도록 건의함.
- 연구사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을 고려, 향후 사업에서는 연구 결과보고 일정을 미리 공지해줄 수 있도록 건의함.

## 6. 성과 관련 지표

#### □ 대표 사업 실적

- 연구논문 네 편, 전문학술지 특집논문으로 게재 예정

- 『아시아리뷰』 13권 1호 특집논문 게재 신청 (2023년 4월)

## □ 성과 자율 지표

※ 예: 해당 사업이 연구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일(2022년 4월) 기준 2년 이내 사사표기 된 논문 게재 또는 게재 예정(혹은 단행본 예정) 00건, 비연구사업의 경우 사업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사사표기 된 언론 홍보 00건 혹은 DB 자료 00건 등

※ 성과 지표의 형식 및 내용은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북한 도시-사회문화 연구단’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를 통한 북한 도시-사회문화 연구단을 구축, 북한 도시성과 도시문화 연구 지속 확장을 위한 기초 수립
- 북한 도시성 및 도시문화에 대한 원전 중심 자료 구축
  - 연구자들이 참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원전 자료를 개략적인 아카이브 형태로 비공개 구축
  - 자료 특성상 일부 공개 불가한 사안이 있어 연구사업단 개별 USB 보관으로 대체
- 사사표기 된 논문 게재 예정 4건 [첨부 1]
  - 관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학술논문 네 편 작성, 현재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특집논문 형태로 투고 중
  - 4편의 논문 투고는, 연구사업 지원 단계에서 계획한 2~3편의 논문작성을 상회하는 결과로, 연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 연내 단행본 출판 계획
  - 북한 도시-사회문화 연구단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연구자와의 논의를 통해 연내 단행본 출판 계획 중

## [첨부 1]

■ 《아시아리뷰》 특집기획 제안서(2023.01.09)

### [특집주제] 김정은 시대 북한 도시의 이상과 현실<sup>1)</sup>

김백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장)

이 공동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통치체제와 시민 일상생활의 상관적 변화 양상을 도시 현상에 초점을 맞춰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공통된 인식의 기반을 확보하고 세부 연구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먼저 북한 도시에 대한 선행연구의 경향과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는데, 그동안 북한의 도시연구는 주로 통치전략 차원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토계획, 지역개발, 도시계획, 주요 건축물, 가로배치, 인구분포 등 개별 도시의 물리적·공간적 특성과 도시사회의 외형적·양적 속성에 대한 현상적 분석 위주의 연구가 북한 도시 연구의 주종을 이루어왔다.

이에 비해 사회문화적 차원의 의식·정서를 중심으로 한 북한 도시사회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공식적 통치담론에서 ‘도시문화’에 대한 강조가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의식·정서적 차원의 재현 공간으로서 북한의 ‘도시성’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관심과 분석이 학술과 정책 양 측면 모두에서 긴요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문제의식 하에 이 공동연구는 북한사회 특유의 ‘도시성’에 주목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변화하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생동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공통 질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상호 긴밀히 연관된 네 가지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은 네 편의 연구논문을 통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 [제1논문] 김정은식 ‘사회주의문명’ 도시공간의 생산: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김정은식 ‘사회주의문명’ 도시 공간의 생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담론적 특징은 무엇이며, 실질적 전개 양상은 어떻게 다른가? 이 논문에서는 앙리 르페브르가 고안해낸 삼차원적 공간 개념—‘공간 재현’, ‘재현 공간’, ‘공간적 실천’—을 활용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모든 인민’을 위한 도시로서 선전되며 건설된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문명’ 도시공간의 생산은, 오히려 ‘인민’을 소외시키고, 분화시키며, 파편화시키는 상징적이고 허구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논문] 김정은 시대 도시·주택 건설정책의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개혁·개방 정책을 확대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이민위천(以民爲天) 등을 강조하면서, 도시·주택 정책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살림집 건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북한의 도시·주택 정책과 주택 건설 실적에 대한 개관을 바탕으로 평양 살림집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도시·주택 정책의 특징과 변화, 그리고 향후 전망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3논문] 김정은 시대 미래과학도시 건설과 회화적 재현: 인상주의 도시풍경화의 출현

1) 이 공동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화 전략: 도시문화 전파를 통한 새로운 ‘도시성’의 발현”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지원을 받아 진행된 5인 공동연구작업의 성과물이다(연구기간: 2022.4.1~2023.1.31; 연구책임자: 김백영).

김정은 시대 북한의 미래지향적 과학도시 건설을 전면에 내세운 대도시 선전 전략은 도시풍경화 (cityscape painting)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시경관에 관한 정치적 서사를 인공조명과 네온사인, 작열하는 태양, 물에 비치는 야경, 짧은 붓 터치 등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기존의 사회주의 그림에서 매우 보기 힘든 표현이며 최근 북한 미술양식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대 인상주의 도시풍경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와 다른 김정은 시대 시각문화의 변화 양상과 미술 제작에서 작가의 시선과 도시인의 감수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해석해보고자 한다.

**[제4논문] 북한식 데사코타(desakota)?: 김정은 시대 북한 농촌의 도시화에 대한 징후적 해석**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정권이 주도해온 도시화 과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양을 비롯한 특정 도시들에 시야를 국한하지 않고, 농촌 살림집 건설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변화 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리학자 테리 맥기(Terry McGee)가 제안한 ‘데사코타(desakota)’ 개념을 통해 북한의 도시화 양상을 도-농 복합체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비교도시론적 관점에서 북한 도시화 양상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예각화시켜보고자 한다.

[제1논문] 김정은식 ‘사회주의문명’ 도시공간의 생산: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

임수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김정은이 집권한 직후 북한 사회 내부 담론 속에는 ‘인민’을 높이며 ‘인민’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비전이 대대적으로 선포되었다.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비전에 맞게 김정은은 평양을 시작으로 지방도시 곳곳에 ‘인민’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공시설, 거리를 건설하고, 이를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사회주의문명’ 도시 공간의 구축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강조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비전과 이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담론, 이와 연계되어 홍보되는 도시 개발의 모습을 고려하여, 김정은시대 북한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정치엘리트들의 통치·관리 전략과 북한 일반 주민들, 즉 ‘인민’들의 공간 경험과 향유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김정은 시대 나타나는 새로운 도시 공간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본 연구는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논의를 이론적으로 차용하였다. 르페브르가 논하는 공간 생산의 세 차원, 즉 ‘공간 재현’, ‘재현 공간’, ‘공간적 실천’의 차원을 북한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북한 정치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구획되고 계획되는 물리적 공간 건설의 모습으로서 ‘공간 재현’의 차원, 정치엘리트와 인민이 연결되며 공간이 인지되고 표현되는 사회 담론으로서 ‘재현 공간’의 차원, 그리고 이를 향유하고 실천하는 일반 주민들, 즉 ‘인민’들의 실제 삶으로서 ‘공간적 실천’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재현 공간’의 차원에서 볼 때,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구호 아래 김정은 시대 도시 개발은 ‘인민’을 위한 김정은의 대표 사업으로서 설명되었다. 평양과 주요 지방도시를 포함하는 김정은 시대 도시 개발은 최고지도자를 칭송하고 이상화하는 사상교양 거점으로서의 모습보다, ‘인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구현 공간으로서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간 재현’의 차원에서 볼 때에도, 실제 김정은 시대 도시개발 속 주요하게 강조되고 건설되는 건축물들이 ‘사상교양’ 건축물보다 ‘인민’들을 위한 ‘살림집’(주택), 그리고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등으로 상징되는 문화·체육시설들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민을 위한 지상낙원’으로서 ‘사회주의문명’ 도시공간의 모습은, 이를 실제 향유하는 주민들의 ‘공간적 실천’ 차원에서 볼 때 괴리가 나타났다. 김정은 시대 건설된 살림집이나 문화·체육시설들은 실제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지도, 사용을 원하는 경우 용이하게 사용할 수도 없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인민’을 위한 도시로서 선전되며 건설된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문명’ 도시 공간의 생산은, 오히려 ‘인민’을 소외시키고, 분화시키며, 파편화시키는 상징적이고 허구의 공간으로 전략하고 있는 것으로 논할 수 있다.

[제2논문] 김정은 시대 도시·주택 건설정책의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

홍순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주택 건설정책의 목표와 특징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와 도시 규모의 성장 억제, 소구역(micro-district) 설정을 통한 자족적이며 균형적인 커뮤니티 형성, 도심부의 고공 시설 및 기념광장 건설을 통한 이념적 학습장소로의 활용 등이다. 북한도 한국전쟁 이후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과 도시 및 주택 정책과 건축양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도시·주택 실적은 경제성장 속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실제 건설 실적은 계획에 훨씬 못 미친 성과를 보였다.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은 개혁·개방 정책을 확대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이민위천(以民爲天) 등을 강조하면서, 도시·주택 정책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발표하면서 평양의 살림집 5만 호 건설 계획을 밝혔다. 2월 12일에는 첫 현지도 장소로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2022년 4월 11일에는 화성지구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이는 평양시를 ‘사회주의 선경’의 모델로 건설하고 이를 지방으로 전파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형상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살림집 건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특히 김정은 시대의 평양 도시주택 개발 정책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물론,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과 적정 규모로의 제한 등 전통적인 사회주의 주택 정책과도 합치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도시·주택 정책과 주택 건설 실적 등을 간략히 개관한 후, 김정은 시대의 도시·주택 정책의 특징과 변화, 그리고 향후 전망과 과제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평양 5대 거리와 주택 5만 호 건설 계획 실적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의도와 그간의 성과 및 한계, 향후 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한 후, 향후 남북경협에의 시사점을 간단히 제시하였다.



조민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도시를 세계적 반열에 들게 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미래지향적이며 이 시기의 도시풍경화(cityscape painting)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2년 12월 12일 ‘광명 2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이 발사된 후 천문학을 위시한 과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미래 과학자의 거리’ 혹은 ‘은하 레지던시’와 같이 특정 거리와 건물에 ‘과학’ 혹은 ‘우주’를 뜻하는 단어로 이름 짓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직관불장식 지도국’을 신설하고 ‘지도국’ 산하에 ‘선경불장식 연구소’를 만들어 도시 야경을 화려하게 조성할 것을 정책적으로 주문했다.

김정은 시대에 진행된 이러한 도시 정책은 평양 대동강 주변의 도시경관과 야경을 유럽의 어느 도시에 버금가는 도시로 만들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며, 이는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 양식을 벗어나 ‘빛’과 ‘색’을 다채롭게 사용하는 인상주의 도시 풍경화가 창작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2018년 박광일이 제작한 유화 <미래과학자의 거리>에서 보이는 화려한 대동강변의 야경과 건물에서 새어 나오는 인공조명을 강조한 인상주의적 표현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미감 보여주고 도시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북한 미술의 동향을 읽을 수 있는 <조선예술>에서도 2011년 이후 <눈 내리는 만수대거리의 야경>, <불빛바다 웃음바다>, <따사로운 사랑의 불빛>등 화려한 조명의 평양 시내 야경을 강조한 인상주의 화풍의 그림이 끊임없이 소개되었다.

도시 경관에 관한 정치적 서사를 인공조명과 네온사인, 작렬하는 태양, 물에 비치는 야경, 짧은 붓 터치 등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기존의 사회주의 그림에서 매우 보기 힘든 표현이며 북한 미술 양식에 급진적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에서 인상주의 미술은 김주경과 같은 근대 월북화가들이 인상주의 미술의 기초를 마련한 이후 평양미술대학의 유화과를 중심으로 창작되어 왔지만, 사실주의 회화에 밀려 비주류로 면면히 명맥만 유지해왔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초기에 변화된 도시경관과 시민의 감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인상주의 화풍의 풍경화가 다량으로 제작되는 현상은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와 다른 시각문화의 특수성을 보여주며, 미술 제작에서 작가의 시선과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의 감성이 미술 창작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그림을 그리는 주체인 작가의 시선과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의 감성이 인상주의 도시풍경화에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지리학자 Terry McGee가 제안한 데사코타(desakota) 개념은 서구 학자들의 도시화 이론이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구 도시 분석에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고자 고안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서구 학계의 도시화 논의가 도시와 촌락의 명확한 분리를 가정하며, 인구는 도시에 집중된다는 전제와는 달리, 아시아에서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에서도 인구집중이 나타나고, 특히 농업·비농업 활동이 혼재된 공간형태인 데사코타가 대도시들을 잇는 회랑(corridor)을 따라 형성되면서 이를 설명하기에는 도시와 촌락의 이분법적 인식의 한계를 지적한다. McGee는 데사코타 개념을 “가설적인 아시아 국가의 공간구조(the spatial configuration of a hypothetical Asian country)”의 일환으로 제시함으로써 서구 도시이론에 대한 대안/대항적 측면에서 아시아적 보편성/추상성을 고려했다지만, 데사코타 개념을 아시아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그가 고안한 데사코타 개념은 농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 바탕하여 추상화되었다.

본 논문은 북한 농촌의 도시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데사코타 개념을 받아들인다. 북한에서 전개되는 군(郡)을 중심으로 촌락과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적 형태와 촌락의 도시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형태적 측면에서 ‘북한식 데사코타’로 설명될 수 있는 지점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정권이 주도하는 도시화 과정은 특정 도시들(대표적으로 평양)에 국한되지 않고, 농촌 살림집 건설을 포함한 농촌의 변화 또한 도시화의 맥락에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McGee가 데사코타 개념을 통해 도시와 촌락의 이분법에 강하게 경도된 서구 도시이론에 대하여 갖는 비판적 인식은 북한의 도시화를 이해하는데도 유효하다. 그러나 데사코타가 대도시를 잇는 회랑을 따라 형성된 것과는 달리 북한식 데사코타는 북한의 제한된 도시화 상황에 맞지 않는 개념적 뼈격거림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비교도시론(comparative urbanism)의 관점에서 북한 고유의 농촌 도시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McGee의 개념과의 차이를 비교하려는 긴장을 유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이론적으로 북한 농촌의 도시화를 설명하기 위한 핵심 개념인 데사코타에 대한 도시화 연구에서의 의의 및 북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긴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앞선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북한식 데사코타’의 주요 공간형태로서 군에 대한 인식을 제안한 역대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논의를 검토한다. 지난 2021년 12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김정은의 새로운 사회주의농촌 건설 강령에서는 농촌의 도시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상당 부분 담겨 있고, 이 강령에 맞춰서 2022년에는 농촌살림집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선대와는 차별화된 행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의 아이디어는 온전히 그 개인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것이기보다는 1960년대 발표된 김일성의 사회주의농촌테제로부터 시작하여 김정일을 거쳐 계승된 측면이 강하다. 선대를 포함한 지도자들의 텍스트(저작, 노작 등)를 통해 북한식 데사코타의 개념적 계보학을 확인할 것이다. 4장에서는 앞선 개념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북한식 데사코타의 형성의 예시로서 삼지연시, 검덕지구 등에 대한 담론적, 공간적 분석을 간략히 시도할 것이다. 사실상 삼지연시를 제외하고는 이제 막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들로부터 데사코타적 특징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농촌의 도시화 추이를 예상하는 징후적 해석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간략

히 다루는 것으로 본 논문은 마무리된다.